

# 망양보퇴(亡羊補牢)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에 장신(莊辛)이라는 충신이 있었다. 하루는 國王의 측근들이 나라를 그르치는 것을 보다 못해 이렇게 말했다. 장차 이 나라는 외부의 침입에 의해 국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초(楚) 양왕(襄王)에게 말했다. 그러나 양왕은 장신에게 험악한 욕설만 잔뜩 늘어놓아 장신의 말을 무시하고 말았다.

양왕은 '이 늙은이가 돌았나 보군! 고의로 험악한 말을 늘어놓아 민심을 혼란스럽게 하더니' 라고 말하자 장신은 '왕께서 계속 그 자(者)들을 좋게 하신다면 아마도 그런 위기는 반드시 닥쳐오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초(楚)나라로 몸을 숨기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는 초(楚)나라를 떠나버렸다.

장신이 초나라를 떠나 간지 채 다섯 달도 되지 않아 진(秦)나라는 초(楚)나라를 쳐서 크게 이겼고 양왕(襄王)은 크게 패해 양성(陽城)으로 도망치게 되고 말았다.

후회한 양왕(襄王)은 급히 신하를 보내 장신(莊辛)을 불러왔다. 그리고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장신에게 물었더니 장신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답했다.'

'토끼를 발견한 뒤 사냥개를 불러도 늦지 않고, 양을 잃은 뒤 즉시 양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습니다(見兔而顧犬, 亡羊而補牢). 초나라는 아직도 수 천리 땅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물론 장신이 한 말은 양왕(襄王)의 어리석음을 비판 말로 우려속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 칼럼

**이희용**  
포천영협 회장



말과도 통하는 말이다. 가장 늦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가 장신의 망양보퇴에서 느끼듯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작업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우리고장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입신과 관련된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인구집중도에 맞는 객관적인 행정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이제 와서는 포천이 나후지역으로 퇴보한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는 조선시대 수많은 명현을 배출했을 뿐 아니라 삼일운동에도 이종일, 박동환, 권동진 등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3인이 포천출신이었다.

뿐만 아니라 포천에서 국회의원을 한사람은 거의 장관까지라는 한디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은 국경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수행한바 있고 한때는 우리고장 출신의 국회의원이 다섯 명이나 되어 국정운영에 상당부분의 중책을 품이하던 때도 있었다.

그런데 고향을 위해 힘을 합쳐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갈등과 반

목을 거둬하여 천년만년 누릴 것만 같았지만 권불심년이라고 인젠가부터 우리고장은 오히려 발전에서 밀려나 점점 뒷걸음질치는 것만 같다.

근래에 와서는 정파와 입산의 이익의 반복으로 인해 자리는 잊고 역할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로 인해 불과 심어 전 전에는 인근지역에서 포천을 부러워하고 인물을 배출해야 그 지역이 클 수 있다는 부러움의 대상에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출마했던 모든 후보가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치욕스런 과오를 남기고 이제는 발전의 동력을 잃은 소외된 지역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마치 한집에 큰 재산으로 잘 기르던 소를 잃고 망연자실한 농부의 마음이나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소를 잃은 농부는 그냥 그렇게 자포자기하여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인가? 아니다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를 거울삼아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러면 무엇을 바로잡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조상과 출중한 선배들 그리고 법 없이도 살아갈 순박하고 부지런한 시민들이 있고 꿈을 키우며 무럭무럭 성장하는 후세가 있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 화합해야 한다. 이제까지 생각이 다른 길을 걸어 왔다면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

그동안 포천을 아끼고 사랑했지만 기회가 되지 않아 고향을 위한 일에 참여하지 못했던 출향 인사도 고향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자문도 받고 역할이 있다면 도움도 청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에 의해 뽑힌 선출직 인사들은 서로의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말이다.

소를 잃었어도 또 거기에 소를 키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지금 외양간을 고치자.

정치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외부의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데 힘을 모으고 한곳에 집중하지 말고 고른 분야에 대화를 통한 소통방향을 모색하고 교육자는 유능한 학생을 많이 배출할 수 있게 교육여건개선과 수능시험장 등을 적극 유치하고 시민 모두는 능력 있는 포천 출신 출향 인사를 많이 섭외하여 스스로의 능력을 증시시켜야 하는 것이다.

아직도 포천은 무한한 잠재력과 인적자원이 있는데 걱정부터 하지 말자. 밥 먹고 체했다고 굶을 수는 없지 않은가?

### 특별기고

## 과거(역사)를 잊지 말자

과거를 잊은 자는 과거만을 되풀이 한다고 했다. 가난했던 시절, 불우했던 시절을 잊으면, 채웠던 돌부리에 다시 채인다고 했다.

일본의 이와사키 남작은 '비 서비스 회사'를 창업한 큰 사업가이다. 그는 선박수송업을 중심으로 큰 사업을 일으켜 많은 자산을 모았고, 실업계에 끼친 공이 커서 일본정부에서는 그에게 남작이라는 작위까지 수여해서 그 이름은 세상에 크게 떨쳤다.

몹시 무더웠던 어느 날, 80세가 넘으신 그의 어머니는 큰 보따리 하나를 아들 앞에 놓았다.

"어머니 이것은 옛날에 쓰던 모기장이 아닙니까?"

"그렇다, 내가 어렸을때 치고 자던 모기장이네"

"어머니 이 낡은 모기장을 지금 금까지 보관 하겠습니까? 진작 버리지 않아요?"

"옛날 오늘같이 무더운 여름 날 밤, 고향의 쓰러져 가는 오두막집에서 너하고 이 모기장을 치고 달빛을 보면서 풀벌레 소리를 자장자 삼아 편안히 잠을 자지 않았더라"

어머니는 20세 초반에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과 단둘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며 살던 옛날을 회상하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가까워진 것 같아서 죽기 전에 너에게 이것을 물려주는 것이니 영원히 가보로 전해가거라" 하신다.

"어머니! 이 낡은 모기장을 가보로 전하러요?"

"너는 아직도 내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검소하지 않고, 집을 크고 화려하게 꾸미고 사치하는 것을 타하는 이 어머니의 뜻을 정녕 모른단 말이나, 내가 아무리 크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옛날 이 모기장 속에서 잠자던 시절을 잊어서는 안된다, 너의 아들 손자 대대손손이 이 모기장을 전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여라."

그제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간곡하신 뜻을 깨달은 이와사키가 울면서 말한다.

"어머니! 이 낡은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교훈을 영원히 잊지 않고 이 모기장



**이중희**  
포천문인협회 회장

을 우리 집의 가보로 전해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큰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어머니!"하며 낡아 빠진 모기장을 가슴에 품고 울었다.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에 희망을 걸고 살아오신 어머니의 은혜를 새삼 뼈에 사무치게 느꼈던 것이다.

이와사키 남작의 집에는 지금도 근검절약의 정신이 담긴 낡은 모기장을 가보로 소중히 보관해 전하고 있다.

이것이 어찌 한 가정만의 문제이겠는가?

"우리는 일본을 용서 할 수는 있으나 잊지는 않을 것이요," 모택동이 일본수상에게 한 말이다.

이 말을 들은 일본수상은 등골에서 식은땀을 흘렸다고 하지 않던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는 늘 보복해 왔다.

### 자유기고

## 석향마을 노인회 파이팅!

며칠 전 우리 대방 석향마을 노인회 및 부녀회가 아파트 주변정소를 하였다. 노인회에서는 매달 25일을 대청소의 날이라고 정하여 놓고 아파트 단지주변은 물론이고 아파트 바로 길 건너 소홀을 공영주차장 청소까지 하신다.

이 날은 특별히 부녀회원들도 참석하여 친목 및 대청소를 도와 어르신들과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차장 청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10시가 넘었는데도 많은 차들

이 주차되어있어 청소하기가 불편하였으나 어르신들은 허리를 굽혀 차 밑바닥 구석구석 쓰레기를 찾아서 고생을 하시는 모습에 고맙기도 하였고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관리가 소홀한 탓으로 주차 우범 지역이라 말씀하시며 누군가 나서서 관리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다. 한쪽에 컨테이너까지 상시 놓여져 있어서 사용하지도 않는 컨테이너가 불필요하며 이것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셨다.



**강옥자**  
주부영어지도사

읍사무소에서 가끔씩이라도 나와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넌즈시 말씀하셨다. 다음은 대청소를 마치고 박정희 노인회장은 한 분도 빠짐없이 노인정으로 모시고 어르신들께 맛있는 점심도 준비하셔서 대접해 주셨다.

이것저것 고생도 많이 하시며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잊지 않으시고 한분 한분 챙겨드리는 모습이 고 박정희 대령 부인 육영수 여사님 같으셨다.

대방석향마을 아파트는 832세대가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타의 모범이 되는 아파트를 만들어 가기 위해 동 대표님을 비롯 관리실 경비실 직원들까지도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출근수범하고 나아가서는 포천을 대표하는 브랜드 있는 아파트로 자리매김 되기를 위해 늘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다.



### 시

## 내 마음의 품금

**이효정**  
주부영어지도사



나 어릴 적 동무생각이 난다. 내일 모레면 국민학교 동창회. 코 훌리게 친구들의 모습이 내 기억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아른거린다.

내 나이 마음을 훌쩍 넘어 어릴 적 철없던 개구쟁이 시절이 그리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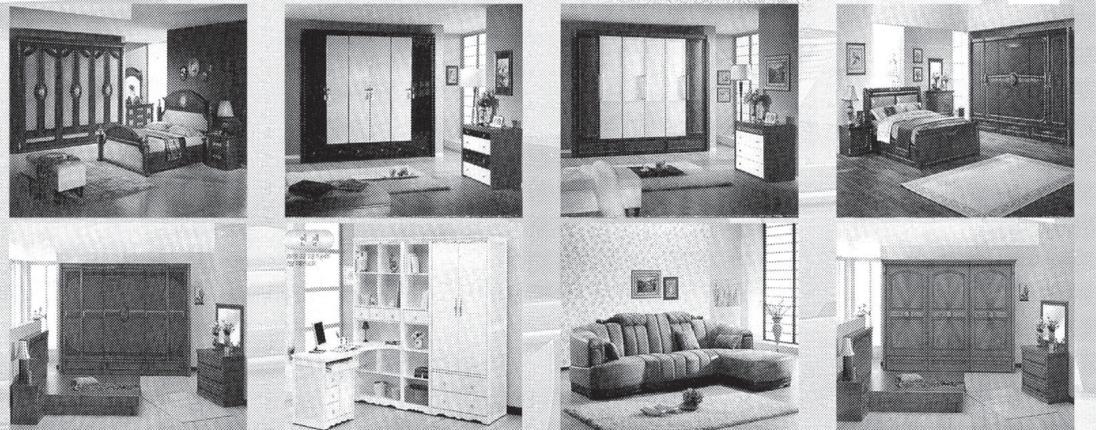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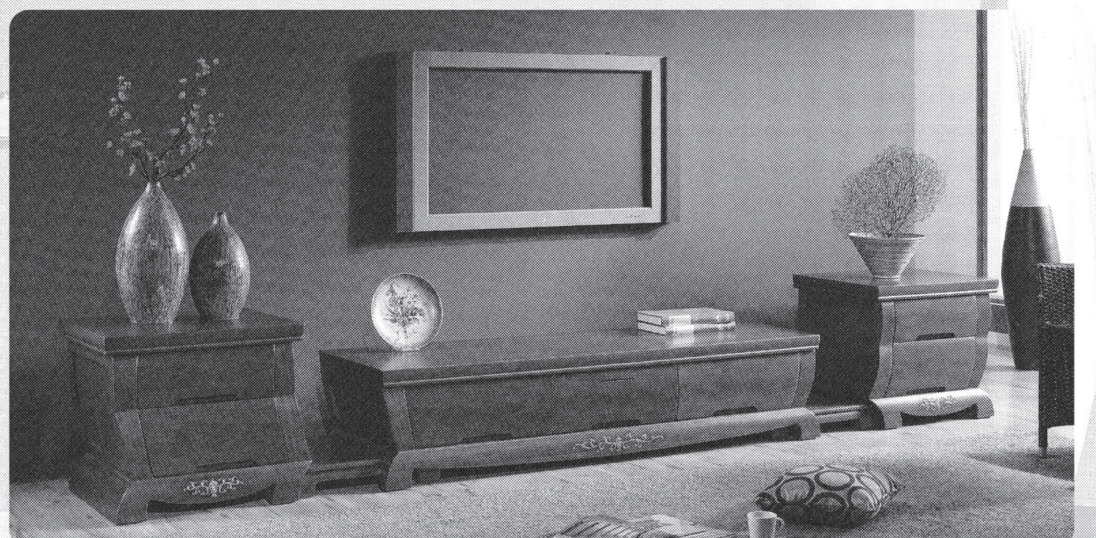
학교 가는 길엔 노랑, 빨강, 하얀 많은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오솔길 꽃 한 송이 머리에 예쁘게 장식하고 마냥 즐거워하던 소녀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뛰어다니던 운동장 넓게만 보이던 학교. 이전 우리에게 작아져 버린 교실 우리 반 교실에는 아직도 선생님의 목소리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내 마음의 품금을 울린다.



최고의 제품 · 최고의 디자인 · 최저의 가격

# 사랑방가구 · 상일리베가구



**연중무휴**  
상담환영(혼수·입주외)  
차량운행(예약)합니다.  
☎ 031)536-0563

